



1

# 산 첩첩 골 첩첩, 영천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어딜 둘러봐도 산과 들판뿐이다. 우리네 산천이 거의 그렇듯이 길을 걷다 만나게 되는 산과 들판, 강과 호수, 바다와 섬은 가장 한국적인 풍경이다. 이번 달에는 경북 내륙의 산간 고을, 영천으로 간다. 눈길을 머물게 하는 이렇다 할 볼거리가 드물지만 이 땅에 발을 디는 순간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풍경과 눈인사를 나누게 된다. 영천 여행은 1박 2일 코스가 무난하다.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북영천 나들목으로 빠진다. 35번 국도를 타고 안동 방향으로 7km쯤 달리면 오리장림(五里長林)이 나온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숲은 1500년대에 마을 주민들이 만든 인공림이다. 오랜 세월 바람막이, 제방보호, 홍수 방지 등 숲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숲의 길이가 5리(2km)에 달해 예부터 오리장림이라 불렀다고 전하며 마을 사람들은 '자천숲(자천은 마을 이름이다)'이라고도 부른다. 숲이 생길 때부터 매년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의 무사태평을 비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이 숲에는 현재 굴참나무, 은행나무, 왕버들, 시무나무, 느티나

무, 팽나무, 풍계나무, 회화나무, 말채나무, 소나무, 곰솔, 개잎 갈나무 등 12종 280여 그루가 뻗뻗이 심어져 있다. 철따라 다양한 색채를 드러내는데 여름에는 자천 마을 앞을 흐르는 고현천과 어우러져 시원함을 한껏 풍기고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볼만하다.

오리장림에서 35번 국도(안동 방향)를 타고 쪽 올라가면 보현산천문대를 알리는 이정표를 보게 된다. 그 들머리에 있는 별빛마을(화북면 정각리)에 잠시 둘러본다. 별빛마을은 보현산 남쪽에 자리잡은 산골마을로 보현산천문대 입구에 있다 하여 천문대 마을로도 불린다. 55가구 100여 명의 주민이 아옹다옹 살아가고 있는 인심 좋은 마을로 다랭이 논에서 익어가는 누런 벼이삭과 여기저기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 햇빛 가리개를 뒤집어쓴 포도밭은 가을이 무르익었음을 알려준다. 해발 1,124m의 보현산 정기를 받아먹고 자란 이른바 '별빛사과'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고 탱글탱글 여문 포도송이는 군침이 돈다. 특히 별빛사과는 일교차가 평균 12℃ 이상인



이상적인 기후조건에서 생 산돼 맛과 당도뿐 아니라 과즙이 많아 신선도와 저장성이 으뜸이다. 사과 작목반장 김오섭(054-336-8102)씨께 연락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별빛마을에서는 연중 과일 따기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린다. 마을 홈페이지(www.starvill.co.kr) 참조.

별빛마을 옆으로 난 도로를 따라 15분쯤 굽이굽이 올라가면 보현산 정상(해발 1,124m)에 자리한 보현산천문대에 닿는다. 보현산천문대는 밤하늘의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1.8m 광학 망원경을 비롯해 태양을 관측하는 태양 플레이 망원경 등 천체 관측 시설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종합 천문대이다. 10월까지 한 달(첫 번째 토요일)에 한번(사전 전화예약에 한함) 천체관측 시설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또 1년에 한번 '아마추어 천문인의 밤' 행사를 열어 별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곳에 있는 천문장비는 영하 20도, 습도 95%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며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1백만배 이상 관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방문객 센터 전시관 내부에는 천체사진 등이 걸려 있고 간단한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다. 일몰 후에는 천문학자들의 관측연구를 위해 차량출입을 통제한다. 개방시간: 매월 첫째 토요일 14:30 ~ 16:30분. 견학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전화예약 필요(054-330-1000). 홈페이지(www.boao.re.kr) 참조.

보현산천문대에서 내려와 별빛마을 삼거리에서 좌회전, 포항 방면으로 5분쯤 가면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보현산 약초마을이 나온다. 민박을 하며 산골 인심에 푹 빠져볼 수 있어 도시민들이 심심찮게 찾아오는 곳이다. 민박집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약초로 만든 음식(약주, 닭백숙 등)은 잃었던 입맛을 되살려주고, 방 천정마다 창이 나 있어 밤하늘의 별을 헤며 잠들 수 있는 보기 드문 마을이다. 민박 요금은 4인실 3만원, 6인실 4만원을 받는다. 문의: 054-336-4468.

약초마을에서 나와 포항 방면으로 계속 달린다. 어느 순간 펼쳐지는 푸른 호수가 두 눈을 가득 채운다. 영천댐을 둔 영천호다. 구불구불 이어진, 호수를 따라가는 길은 경치가 으뜸이다. 중간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마을은 평화롭기 그지없고, 산자락에 가득 담긴 푸른 물은 답답한 가슴을 뚫어준다. 물을 가둔 영천댐은 총 저수량이 9,640만톤으로, 포항과 영천의 식수와 공업용수로 쓰이고 있다. 이 댐의 건설로 자양면의 6개 법정동이 수몰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댐의 역할을 새삼 돌아보게 해준다. 댐 주위에 있는 강호정, 오회공 종택, 하천재, 사의당, 삼휴정, 오회당, 생육신 이경은 선생을 기리는 용계서원, 충효재 등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호수 옆 면사무소 뒤 기룡산에는 천년고찰인 묘각사와 거동사가 자리잡고 있다.

영천댐에서 임고면 소재지로 나오면 고려 말의 충신인 포은 정몽주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임고서원을 만나게 된다. 포은은 고려 충숙왕 복위 6년(1337) 현 임고면 우항리에서 태어나 공민왕 9년(1360)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고, 왜구토벌과 대명국교(對明國交)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현 건물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선조36년



(1603)에 증간한 것으로 1990년부터 성역화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서원 옆에 새로이 서원을 세워 웅장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서원에는 정몽주 선생 영정 2폭과 포은 문집(圃隱文集) 목판 113판, 지봉유설(芝峰類說) 목판 71판, 포은집 등 선생의 업적과 초기 성리학 사상의 한 흐름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보관돼 있다. 서원 앞에서 있는 수령 500년을 헤아리는 은행나무도 기품을 자아낸다.

임고서원에서 비산비야의 산천을 바라보며 영천시내로 나온다. 시내권에서 볼만 한 곳으로는 조양각이 있지만 현재 보수 중이다 그 실체를 볼 수 없다. 금호강 언덕 위에 오두마니 서 있는 조양각은 일찍이 진주 축석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영남 삼루에 꼽혀왔다. 조양각 앞에는 우리나라 대중가요사의 한 획을 그었던 '황성옛터' 노래비가 서 있다. 이 노래를 지은 왕평(본명 이두희)은 1904년 영천시 성내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불릴 정도로 머리가 뛰었다고 전한다.

조양각을 못 본 아쉬움을 뒤로 하고 경주 방면 북안면 소재지로 간다. 정성껏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돌할매'를 보러 가는 길. 어디까지나 속설이지만 영천 사람들에게 돌할매는 보물처럼 소중한가 보다. 매년 수만 명의 기도객들이 다녀간다고 한다. 입시생을 둔 학부모에서부터 예비 신랑 신부, 자식을 얻지 못한 아낙 등등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소원 묻는 돌할

매'로 불리는 10kg 남짓의 동그란 돌은 요술 덩어리임에 분명한 모양이다. 이 돌은 평소에는 쉽게 들리다가 정성스레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들어 올리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게 돌할매가 소원을 들어주는 걸로 여긴다. 돌할매가 널리 알려지면서 인근에는 돌할매를 훔내낸 돌할매와 또 다른 돌할매가 생겨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하지만 신통력이 원조 돌할매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어쨌거나 마을 주민들은 길흉화복이 있을 때마다 이 신통한 돌을 찾아 제를 지낸다니 이곳의 명물임에 틀림없다.

영천과 대구를 감싸 두른 팔공산(해발 900미터)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이 산 동쪽 자락에 터를 잡은 은혜사는 거조암, 백홍암, 운부암, 중앙암, 기기암 등 8개의 암자를 거느린 천년고찰이다. 매표소에서 은혜사로 가는 길은 고요하고 청량하다. 돌돌돌 흘러내리는 계곡 물 소리는 세상사에 찌든 영혼을 맑게 행구어주고 늘씬하게 뻗은 소나무는 피톤치드 향기를 맡껏 내뿜는다. 이 길을 걸어본 이들이라면 저 청도의 운문사나 평창의 월정사를 떠올릴지 모르겠다.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아침녘에 거닐면 그 신비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은혜사에서 백홍암→중앙암, 묘봉암→인봉→노적봉→관봉 인봉→신녕재→공산폭포→수도사→신녕면 치





산계곡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팔공산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다. 청통면 신원동에 있는 거조암은 은혜사의 말사 중 단연 돌보인다. 본절(은혜사)과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다른 암자와는 달리 신령면에서 들어간다. 거조암이 간직한 영산전은 앞 뒤 정면 7칸 측면 3칸의 길쭉한 맞배지붕 집으로 소박하고 간결한 주심포계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보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가 뛰어나다. 영산전 안에는 석가모니 불상과 526분의 석조나한상을 모시고 있어 또 다른 볼거리다. 하나같이 표정이 다른 석조나한상을 보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오백성중청문이란 책자도 이곳에 있다. 이 책에는 5백나한상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영파스님이 저술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거조암 (054-335-8258)



마지막으로 갈 곳은 팔공산 주봉 북쪽 자락에 들어앉은 치산계곡이다. 온갖 형상의 기암과 울울창창한 숲, 시원한 폭포를 둔 곳으로 10월경이면 형형색색의 단풍 또한 장관이다. 계곡 들머리에는 신라 선덕여왕 14년에 원효대사와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천년 고찰 수도사가 있어 둘러볼 만하다. 길으로 보기에 여느 절과 다를 것 없는 소박한 모습이다. 범당에 그려진 괘불탱화는 보물로 지정돼 있다. 수도사에서 계곡을 따라 약 1km쯤 올라가면 3단으로 쏟아지는 공산폭포(치산폭포)를 만나게 된다. 수태골폭포와 함께 팔공산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공산폭포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갈림길이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팔공산 능선의 신령재를 넘어 동화사까지 갈 수 있다. 등산 코스: 수도사 → 공산폭포 → 동봉 → 동화사 → 갯바위.

▶ 여행수첩(지역번호 054) = 대구 포항간 고속국도 북영천 나들목-안동 청송 방면 35번 국도-오리장림-별빛



7

마을-보현산천문대. 별빛마을 삼거리 좌회전-보현산 약초마을-영천호(댐)-임고서원-영천시내-조양각-경주방면 북안면 반정리 농공단지-돌할매 순으로 돌아본다. 경부고속도로 영천 나들목→ 영천 시내→ 남문 4거리 → 청송방면 → 화남면 → 화북면 소재지에서 청송방면 400m → 보현산천문대 방향 (도로안내 표지판 참조) → 천문대 입구마을(별빛마을). 영천버스정류장에서 임고서원까지 매일 10회 버스 운행. 영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루 5회 운행하는 치산행 버스 이용. 영천시외버스터미널 → 화북면소재지 → 정각리 (별빛마을), 1일 10회 운행, 1시간 소요. 영천(하양)에서 은혜사행 버스가 수시로 다닌다. 중앙고속도로 군위나들목 -효령 방면 5번 국도 -효령초등학교 -919번 지방도-신녕면 소재지-치산계곡.

영천 시내-군위 방면 28번 국도-신녕사거리-919번 지방도로-치산계곡. 기차편 : 서울역 → 영천역 (경부선), 1일 4회 새마을호 운행, 4시간 30분 소요, 고속버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 영천시외버스터미널, 1일 5회 운행, 영천시청 문화공보실(www.yc.go.kr, 330-6061, 6064).

▶ 잠자리와 맛집 = 치산계곡과 은혜사 주변에 있는 강변여관(334-0601), 귀빈장여관(334-2020), 동경호텔(331-4611), 무림장여관(334-3055), 은혜산장(335-0360), 동화장여관(331-1220), 치산방갈로가든(337-3702) 등을 이용한다. 맛집으로는 치산계곡 입구에 소원식당(토종 닭백숙, 산채비빔밥, 337-4748(민박 겸용)), 치산식당(다슬기탕, 337-2199) 등이 있고 신령면 소재지에 장성숯불가든(한우숯불구이, 333-8885), 느티나무식당(찌개류, 332-0987) 등이 있다. 시내 영천시장 안에 있는 길손식당(333-6180)은 돼지고기, 소고기 수육과 곰탕이 일품이다. 수육 1인분 1만원, 곰탕 4,000원.

글 : 김 동 정(여행작가)

1. 국보로 지정된 거조암 영산전
2. 보현산 아래 별빛마을의 쉼터
3. 오리장림의 푸른 숲, 길이가 5미터에 달한다.
4. 포은 정몽주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임고서원
5. 치산계곡의 공산폭포, 물줄기가 시원스럽다.
6. 천체관측을 할 수 있는 보현산천문대
7. 은혜사 들머리의 흰철한 소나무숲